베트남의 석유개발과 美國의 對베트남정책

1. 머리말

베트남은 1986년 이후 베트남식 페레스트로이카인 도이모이(刷新)정책을 채택, 경제관리제도의 개혁과 대외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은 1975년 공산화 통일이후 남베트남지역에까지 계획경제체제를 확대적용해 왔으나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이 표면화되고 공산권내에서의 개혁과 개방추세가 일반화됨에 따라 도이모이라는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시장경제원리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이모이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기본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중공업을 중시하고 자급자족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식 工業化에서 탈피, 농업(식량생산), 경공업, 수출의 3대분야 발전에 주력
②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
③외국인투자의 적극 유치
④국가소유형태에서 탈피, 개인기업, 협동조합 형태의 민간소유권을 인정하는 등 다양한 소유형태의 도입

이러한 기본정책에 따른 경제관리제도의 개혁은 구체적으로는 국영기업의 독립채산제 도입, 국가보조금제도의 폐지, 소규모 사기업활동의 허용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

베트남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의 추진에는 美國의 경제제재가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아 있는데 베트남은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여타국가의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1988년 외국인투자법 시행이후 1991년 상반기까지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총 273건, 약 21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최근 석유개발분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美國의 석유메이저들은 美 행정부의 對베트남 경제제재조치에 막혀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美國은 베트남에 대한 정책은 작년이후 우호적으로 전환하려고 모색하고 있으나, 美國이 여전히 캄보디아 문제와 베트남전 실종미군문제에 대한 해결을 양국간 관계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美·베트남관계는 그리 큰 진전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최근 서방국가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의 석유부분에 대한 개발 및 각국의 투자진출현황 그리고 美國의 경제제재조치 해제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베트남의 석유개발

(1) 추진경위

베트남의 석유개발은 1968년부터 시작된 대륙붕 석유탐사에서 대규모 석유매장이 확인됨에 따라 서방기업의 개발참여로 시작되었으나 1975년 공산화에 따른 서방기업의 철수로 채굴작업은 일시 중단되었다. 西獨, 이탈리아, 캐나다, 英國 등의 석유메이저들은 베트남이 1977년에 제정한 외자도입법에 따라 다시 석유개발에 참여하였으나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에 대한 국제비난 여론으로 다시 철수하고 말았다. 그후, 1981년에 이르러서야 소련과의 합작회사인 *Vietsovpetro*社가 개발에 참여, *Vung Tau*의 白虎油田에서 시추에 성공, 1986년부터 본격적인 석유생산을 시작하였다. 1988년부터는 외국인투자법의 시행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서방 석유메이저의 재투자가 이루어져 1990년 말까지 10건(투자자금 5억 3,000만 달러)의 석유개발계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베트남의 석유개발은 크게 5개의 대륙붕지구(북부의 *Tongkin*灣 지구, *Hanoi Red river* 삼각주 지구, 남부의 *Vung Tau* 지구, *South Con Son* 지구, 중부의 *Hue* 지구)로 나뉘어 개발되고 있다. 최근 하와이의 *East-West Center Energy Program*은 베트남의 5개 대륙붕지구의 석유매장량을 10억~25억 배럴로 추정하고 있으며, 생산량도 2005년에는 日産 5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개 대륙붕 지구 중 유망한 지역은 *Vietsovpetro*社가 관할하고 있는 *Vung Tau* 지구로 이 지구내에는 白虎[1], 大熊[2], 龍[3] 등 3개의 유전이 있으며 이들 3개 유전의 잠재 매장량은 약 5억~7.8억 배럴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상업적 석유생산을 하고 있는 백호유전은 당초 공산화 직전인 1975년 미국의 *Mobil*社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 유전은 공산화 이후 국유화되어 1981년에 *Vietsovpetro* 社로 운영권이 이양되었고 1986년부터 석유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유전의 매장량은 약 2억 배럴로 추정되고 있으며, 연간 생산량은 1986년 29만 배럴에서 1989년 733만 배럴, 1990년 1,979만 배럴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련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단기적인 증산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나 매장량의 규모로 볼 때 개발자금문제가 해결되면 현재보다 2~3배의 생산량 신장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1974년 *Royal Dutch Shell*社에 의해 발견된 대웅유전도 공산화 이후 국유화 되어 *Vietsovpetro* 社가 개발하고 있다. 이 유전의 매장량은 2억 5,000만 배럴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991년부터 생산을 개시하고 있어 생산량이 연말까지는 日産 약 5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자본부족으로 개발이 지연되었던 용유전은 英國의 *Enterprise Oil* 社와 개발을 협의중에 있어 투자실시가 결정되면 1990년대 중반부터는 생산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1974년 처음으로 油井이 발견된 이래 베트남의 석유개발은 자본 및 기술부족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이 1988년 이후 대외개방과 더불어 서방 석유메이저에 대해 매력적인 探査開發條件을 제시하며 이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나섬에 따라 서방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베트남이 최근 서방 석유메이저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것은 기술 및 투자자본의 부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서방국가와의 자본과 기술협력을 통해 극복하는 것 이외에도 유력서방 석유메이저의 투자유치를 통해 국제관계를 개선시킬

〈표-1〉 베트남의 석유산업 현황

	생산량(만 d/d)			매 장 량	정제능력(1990년)
	1989년	1990년	1991년	(백만배럴)	(b/d)
백 호 유 전	3.2	5.2	7.5	175~300	800
대 웅 유 전	–	–	5.0	250~350	–
용 유 전	–	–	–	75~125	–
計	3.2	5.2	12.5	500~775	800

〈자료〉 *Petroleum Economist 1991. 2*

계기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서방기업의 석유개발부문에 대한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유인책의 하나로 생산물 분배방식(*product sharing*)을 제시하고 있는데 베트남의 석유생산물 분배방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유전이 발견될 경우 외국회사는 발견된 유전의 상업적 생산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세금이나 다른 로열티를 납부하지 않음.

②試錐探査 3년후 개발을 포기하거나 3년을 연장할 수 있음.

③상업적 생산이 가능할 경우 배당을 생산량의 40%까지 보장하여 탐사비용을 완전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함.

④탐사비용이 회수된 후 생산물 분배비율은 생산량의 30~35%임. 그러나 생산물이 감소되거나 생산량이 적을 경우에 생산량이 많을 경우보다 외국투자자가 더 높은 배당비율을 보장받음.

⑤생산계약은 5년간의 탐사기간을 포함하여 25년간 유효하며 국유화되지 않음.

(2) 국별·지역별 진출현황

베트남은 1990년 가을 소련과 기존의 석유공동생산협정에 대한 개정교섭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소련이 개발자금 조달 곤란으로 미개척광구의 개발에 착수하지 못하자 베트남은 *Vietsovpetro*社가 보유한 광구의 일부를 다시 회수하여 서방의 석유메이저와 생산분배계약을 맺어 개발하려는 것이다. *Vietsovpetro*社는 모두 7개의 광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중 베트남이 소련과의 교섭에 성공하여 금년초에 회수한 광구는 *Vung Tau*에 위치한 4개의 미개척 광구로 알려져 있다. 이 4개의 광구는 앞으로 석유개발에 참여할 미국의 석유메이저와 생산분배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3개의 유전은(백호, 대웅, 용유전) 종전대로 *Vietsovpetro*社가 계속 운영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석유개발에 진출한 서방국가 중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英國이 가장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의 *Total*社는 1988년부터 북부 통킹만 미개척광구의 개발에 착수하였으나 별 성과를 올리지 못하자 최근에는 남부지역에 관심을 표명하고 *Vietsovpetro*社에 공동개발의사를 타진중에 있다. 베트남 유전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英國의 석유메이저는 모두 7개社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 *Enterprise Oil*社는 1990년 말에 *Vung Tau*에서 베트남의 대외개방 이후 시도된 탐사 시추중 유일하게 油井을 발견하였다. 그외의 서방국가로는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진출이 1990년 상반기부터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 생산분배비율(프랑스 Total社의 경우)

1일 생산량	Total社/베트남정부 분배비율(%)
0~3.0만 배럴	35/65
3.0~5.0만 배럴	30/70
5.0~7.5만 배럴	25/75
7.5만 배럴 이상	20/80

주 : 탐사비용 회수 후의 생산분배비율임. 대부분의 분배비율은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으나 *Total*社가 계약한 비율과 비슷한 비율이 될 것임.
〈자료〉 〈표1〉과 같음.

아시아국가로는 베트남의 유전개발에 가장 먼저 진출한 印度를 비롯하여 대만과 쿠웨이트가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베트남은 주변국과의 國境紛爭으로 개발에 착수하지 못한 남지나해 중부의 *Spartly*군도 지역의 석유개발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과의 共同開發을 계획중에 있다. 또한 최근에는 베트남과 해상국경을 맞대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국경부근의 광구에 대해 베트남과의 합작개발계획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들어 베트남의 유전개발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日本이다. 최근 中山외상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日本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에 나섰고 이에 앞서 三菱石油와 三井商社의 합동사절단이 베트남을 방문, 베트남정부에 공식적으로 석유개발을

신청한 바 있다. 日本의 日商岩井, 住友商社, 丸紅 등 대기업들은 유럽 및 일본의 석유회사와 제휴하여 베트남 남부지역에의 석유개발사업 참여를 추진중에 있다. 특히 日商岩井는 인도네시아석유 및 석유자원개발사와, 住友商社는 프랑스의 *Total*社와 기업연합을 구성하였으며, 丸紅은 美國의 *Occidental*社와 공동으로 베트남 정부와 교섭중에 있다. 이들 日本기업들은 이미 베트남에 진출한 석유메이저를 앞세워 대리자 역할을 하도록 하거나 군소 석유메이저를 흡수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외의 日本기업으로는 아라비아석유사, 昭和*Shell* 석유사, 出光석유개발 등이 진출을 위해 베트남과 협상을 추진중에 있다.

한편 美國의 석유메이저들은 미국정부의 對베트남 경제제재조치에 따라 아직은 베트남의 석유개발에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부터 *Mobil*社와 *Exxon*社가 베트남과 직접 접촉을 시작하였고 금년 들어서도 *Mobil*, *Exxon*, *Occidental* 등의 관계자의 베트남방문이 빈번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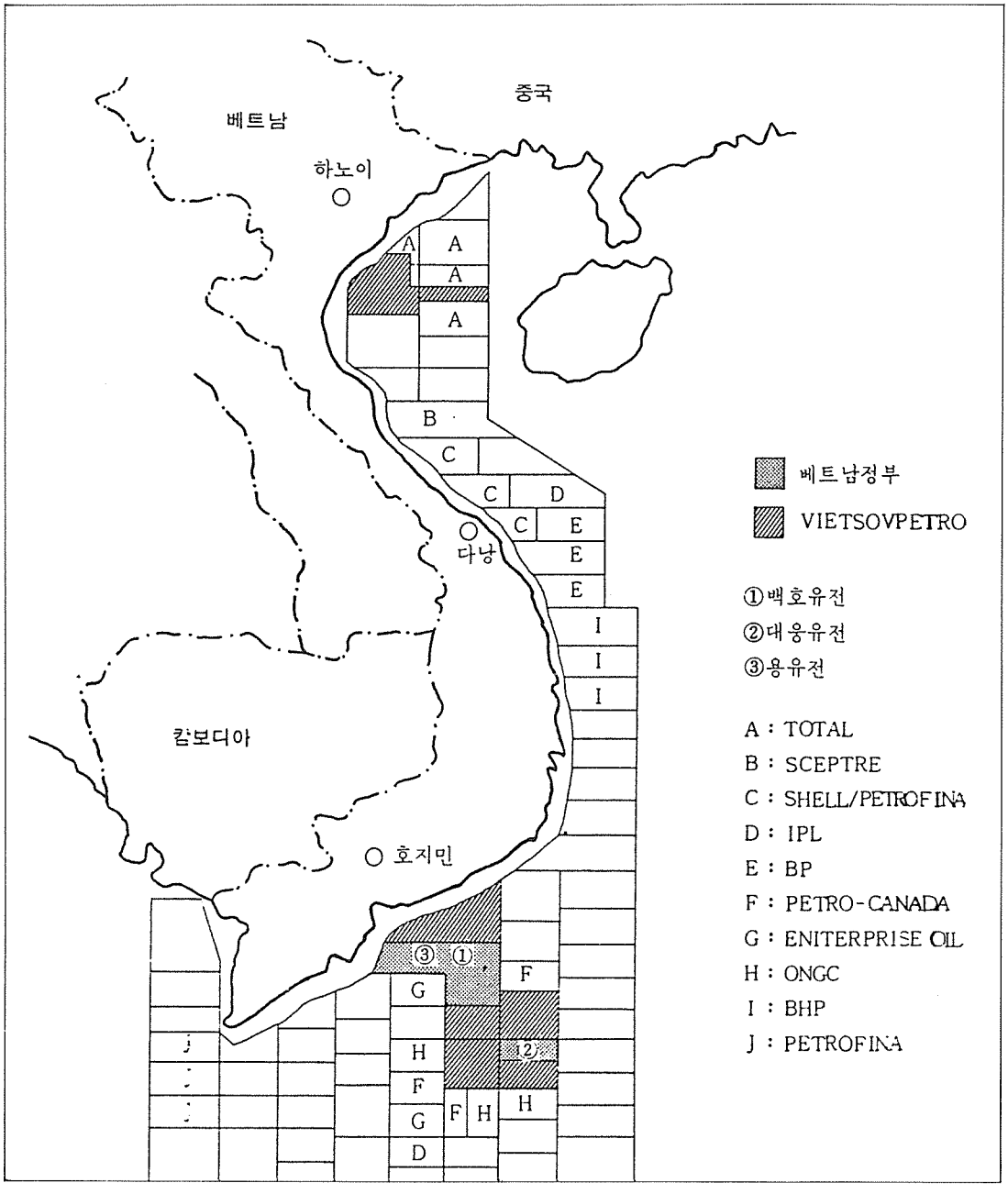
〈표-3〉 베트남의 석유개발분야 투자현황

계약일	투자국	투자기업	투자지역
1988년 5월	인도	Hydrocarbons India (Oil & Natural Gas Commission)	South Con Son (6, 12, 19)
1988년 6월	네덜란드·영국 벨기에	Royal Dutch Shell(66.7%) Pertrofina(33.3%)	Tongkin灣 (112, 114, 116)
1988년 11월	프랑스 영국 프랑스	Total cie Francaise des Petroles(50%) London & Scottish Marine Oil(25%) Repsol Exploracion SA(25%)	Hanoi/Red River (102, 106, 107, 108)
1989년 2월	영국	British Petroleum(100%)	Hue (117, 118, 119)
1989년 4월	영국 프랑스	Enterprise Oil(70%) Compagnie Europeene des Petroles(30%)	Vung Tau (17, 21)
1990년 2월	영국 스위스 스웨덴 영국	Clyde Petroleum plc.(25%) International Petroleum Ltd.(40.5%) Swedish Expl. Cons. AB(24.5%) Cairn Energy pic.(10%)	South Con Son (22)
1990년 2월	영국 스위스 스웨덴 대만	Clyde Petroleum plc.(27%) International Petroleum Ltd.(34%) Swedish Expl. Cons. AB(19%) Oversea Petr. & Invest. Corp.(20%)	Hue (115)
1990년 5월	캐나다	Sceptre Resources Ltd.(100%)	Tong Kin灣 (111)
1990년 5월	캐나다 캐나다 쿠웨이트	Petro-Canada Exploration Inc(50%) Husky International Inc(25%) Kuwait Foreign Petr. Expl. Co(25%)	Vung Tau (3, 12, 20)
1990년 11월	벨기에	Petrofina(100%)	Vung Tau (45, 46, 49, 50, 51, 53, 54, 55)
1991년 1월	오스트레일리아	BHP Petroleum Pty Ltd.(100%)	Hue (120, 121, 122)

주 : ( )안은 광구번호

〈자료〉 중화학공업신보 *1991. 3. 22.*, *Asian Oil & Gas 1991.*, *Energy Economist 1991. 4.*

〈그림-1〉 베트남 대륙붕광구 보유 현황



〈자료〉 *JBRI*, 컨트리리스크 정보 *1991. 5. 13.*, *Asian Oil & Gas 1991. 3*에 의거작성

3. 美國의 경제제재 해제 가능성

(1) 美國의 대베트남 경제제재 경위 및 관계법

美國은 1975년 공산화 직후 베트남에 대한 금수조치를 단행하였으며 1978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이래 베트남 경제고립화정책을 견지하여 왔다. 美

國의 對베트남 禁輸措置는 다음과 같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1990년 8월 美國은 대베트남 금수조치를 1년간 재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① *The Foreign Assets Control Regulation* : 해외자산관리에 대한 규정에 따라 재무성은 미국인(미국기업) 및 美國거주자의 베트남에 대한 資産讓渡를 통제하며 다음과 같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1백만 달러 미만의 베트남물품의 美國반입 허용
- 베트남간행물의 미국반입 허용

② *Export-Import Bank Act* : 공산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상품 구매 또는 임시 사용을 목적으로 한 輸出入銀行의 보험,보증,신용제공 행위를 금지한다.

③ *Agriculture Trade Development and Assistance Act* : 대통령에게 美國 농산물에 대한 販賣協商 및 協定締結權을 부여하되 공산국가는 제외한다. 특히 1973년에 개정된 이 법에는 북월맹(현재의 베트남)과의 모든 무역 및 농산물 공여를 금지하고 베트남에 대한 농산물 원조는 미국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④ *Foreign Aid Act* : 대통령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공산국가에 대해서도 원조를 금지한다. 단, 美國안보에 필요한 경우, 국제공산주의의 음모가 없는 경우, 공산주의에 대항하는데 있어서 피원조국의 독립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원조 가능하다.

⑤ *Trade Act* : 시장경제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Nonmarket economy countries*)와의 무역거래 허가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⑥ *Arms Export Control Act* : 무기, 군수품 및 국방서비스의 수출에 대한 통제

⑦ *Export Administration Act* : 베트남에 대한 수출업무 전면 금지 실시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상무성은 통제대상 수출상품을 지정하여 수출을 허가받도록 하였다. 통제상품품목은 10개 그룹(0~9)으로, 통제대상국은 7개 그룹(*Q, S, T, V, W, Y, Z*)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베트남은 *Z*그룹(베트남, 북한, 캄보디아, 쿠바)으로 구분되어 있다.

(2) 최근의 美·베트남관계

걸프전쟁을 승리로 종결시킨 美國은 새로운 세계질서형성에 자신감을 가지고 지난 15년동안 지속된 외교문제인 동시에 아시아 안보전략에 있어서 어느 형태로든 해결이 불가결한 베트남과의 관계정상화에 대해 중요한 자세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즉 종전까지 견지해 왔던 불접촉원칙에서 협상으로 전환되었는데, 美國은 베트남에 대하여 지난 4월 양국간의 현안문제를 포함한 對베트남 관계정상화 4단계안을 제시하였다. 美國은 베트남과 친베트남 프놈펜 정권이 1990년 8월 *UN*이 결정한 캄보디아 평화협정에 합의할 경우 美國은 베트남에 관계정상화 협상을 위한 고위급대표단을 파견할 뿐만아니라 美國기업의 對베트남 교역도 부분적으로 허용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여전히 美國이 양국간 관계정상화에 대해서 캄보디아 분쟁해결과 베트남戰 실종미군 수색을 기본전제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처럼 구체적인 관계정상화 일정표를 제시한 것은 베트남 공산화 이후 처음이다. 美國이 제시한 조건부 4단계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제1단계 : 캄보디아 평화협정에 대한 베트남의 서명

베트남이 1990년 8월 *UN*이 결정한 평화협정안을 수용할 경우 미국내 베트남 동결자산(약 1억4천만 달러)과 베트남이 몰수한 베트남내 美國자산(약1억 1천만 달러)에 대한 상호간의 합법적 청구를 포함한 협의를 개시하는 한편, 미국인의 베트남 관광허용 및 베트남 외교관의 미국내 여행제한을 허용할 것임.

②제2단계 : 베트남전 실종미군(*MIA*) 문제 해결에 대한 베트남의 지속적 협력의 단계에서 미국은 관계정상화의 구체적 방안을 협의할 고위급 대표단의 파견과 美國기업의 베트남사무소 개설 및 교역을 허용할 것임. 단, 교역의 경우에는 우선 인도적 차원에서의 民間援助機構의 물품수출 등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임.

③제3단계 : *UN*감시하에 캄보디아에서의 베트남군의 완전 철수

캄보디아 평화협정 발효 6개월후 양국간 外交連絡事務所 개설과 對베트남 경제제재의 전면적 해제조치를 취할 것임. 또한 美國은 베트남에 대한 *IMF*

와 *World Bank*의 인도적 프로젝트에 대한 차관제공을 적극 지원할 것임.

④제4단계 : *UN* 감시하의 선거를 통한 캄보디아 民間政府의 수립

이 단계에서 美·베트남간, 美·캄보디아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베트남에 대한 최혜국 대우 부여, *IMF*, *World Bank*, *ADB* 및 기타 국제금융기관의 차관공여규제의 철폐가 이루어질 것임.

美國정부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관계정상화안을 베트남측에 제시하는 한편 실무적인 준비도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美國은 6월부터 고위급 외교관 수명에 대한 베트남어 연수를 개시하였으며 프놈펜의 외교사무소 개설에 대비 외교관의 크메르어 연수도 조만간 재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경제제재조치 해제 움직임

美 행정부가 베트남에 대한 정책을 전환하고 적극적인 외교공세를 펴게된 배경의 일환으로 서구 및 아시아기업의 활발한 베트남 진출에 초조해진 美國 경제계의 압력을 간과할 수 없다. 최근들어 *IBM*, *General-Electric*, *City-Corp*등 美 행정부의 경제제재조치에 막혀 베트남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美國의 유수 기업들이 對베트남 경제제재조치 완화를 요구하며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더구나 美國의 석유메이저들은 美 행정부의 경제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미 베트남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1975년 베트남의 백호유전을 발견한 *Mobil*社는 이 유전의 개발권에 대해 3년전부터 베트남과 협상중에 있으며 그외의 석유메이저로는 *Exxon*, *Chevron*, *Amoco*, *Unocal* 등이 독자적으로 베트남과 접촉중에 있다. 또한 베트남은 美國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있는데 베트남이 금년에 소련에서 회수한 4개광구를 美國에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함으로써 미국내 對베트남 경제제재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석유메이저들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석유메이저를 비롯한 美國 기업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美國 의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특히 美國이 베트남에 제시한 관계정상화, 4단계안 중에서 국제금융기구의 對베트남 자금공여 이전이라도 美國기업의 베트남진출을 허용한다는 내용은 의회의 압력을 강하게 받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美國기업의 진출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금융기관의 對베트남 융자가 허용되면 외국기업에게만 이익이 된다는 계산 때문이다.

4. 맺는말

베트남은 1986년의 도이모이(刷新)정책 채택 이래 경제개발을 위한 견인차로서의 外國人投資 유치와 *IMF*, *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관도입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베트남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10억~25억 배럴에 이르는 풍부한 석유부존자원이며, 서방국가 등의 베트남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진출이 실투자금액 기준으로 이미 5억 달러를 상회하여 전체 외국인투자액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 베트남 經濟活性化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1975년 공산화이래 미국이 견지하고 있는 對베트남 경제제재조치이다. 그러나 美國의 對베트남 경제제재조치는 1991년도에 들어와 점차 해제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美國의 제재조치는 美國기업의 對베트남 交易禁止를 비롯하여 石油産業등 유망산업에 대한 진출금지, *IMF*, *World Bank* 등의 對베트남 자금지원에 대한 견제 등을 야기시켜 왔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 美國의 對베트남 정책이 크게 선회하고 있는 배경으로는,

첫째, 蘇·東歐지역에서의 민주화·시장경제화 개혁에 따른 국제질서의 대폭 변경

둘째, 東아시아지역에서의 中國·蘇聯등의 역할 변화에 따른 勢力均衡 재조정

셋째, 베트남의 석유산업 참여를 비롯한 新市場開拓에서 여타 서방국가나 일본 등 아시아국가의 베트남 선점추세에 대한 美國의 우려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美國은 지난 4월 베트남에 대한 관계정상화 4단계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베트남의 입장에서도 美國과의 관계정상화가 시급한 때문에 美國이 내세우고 있는 몇가지의 현안문제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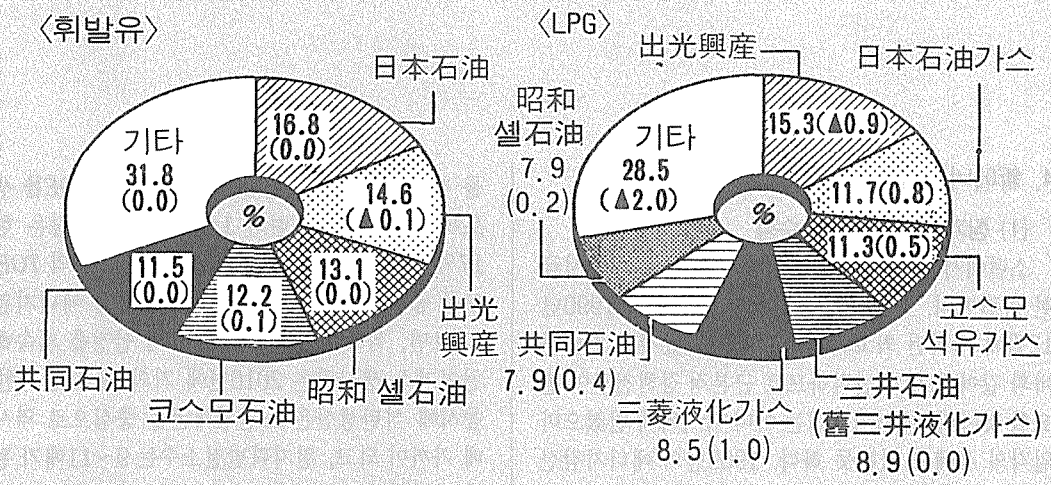
해 적극 검토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제반여건의 변화로 보아 美國의 베트남에 대한 정책변화는 급속히 진전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변화는 美國의 對베트남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특히 주목된다 하겠다.

즉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아직은 未修交상태에 있지만 그동안의 直·間接 교역실적이나 제3국을 통한 우회진출 실적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마당에 美·베트남 관계정상화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관계의 급진전을 위한 청신호가 될 것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이다.

〈한국수출입은행, 주간해외투자정보〉

□ 해외석유시장 □

日本의 휘발유·LPG 시장점유율(1990)



〈註〉 괄호안은 전년대비 증감율 포인트, ▲는 감소

□ 도서안내 □

석유협회 창립10주년 기념

석유산업의 발전사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엮음-